

1 개요

짚신을 짜면서 생활하는 노인이 도적떼를 위기에서 구해 주고,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.

2 내용

초신(짚신) 만들기를 생업으로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, 하루는 서른 냥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시장에 갔는데 어느 엄부력총각이 술 먹기를 권한다. 노인은 고민하다가 돈주머니를 바닥에 놓고 술잔을 받았는데, 엄부력총각이 한순간에 돈주머니를 낚아채고 달아나 버렸다.

노인은 체념하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데, 한 처녀가 자기네 주막에서 엄부력총각이 노름하고 있다고 알려준다. 그 총각은 노인의 돈을 밀친 삼아 노름판에서 돈을 따고, 원 주인이 오니까 돈을 돌려주었다. 노인이 돈주머니를 갖고 집으로 오는 길에 세 명의 도둑을 만난다. 그때 지나가던 사또가 이들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노인에게 물으니, 노인은 자신이 이들(도둑)에게 진 빚이 있어서 벌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둘러대고, 도둑들의 신분을 감춰 주었다. 이에 감동한 도둑들은 노인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며칠 후 삼백 명이 옷과 쌀을 가져다주었다.

노인은 도둑을 위기에서 구해준 말 한마디 덕택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.

3 특징

4 핵심어

초신, 엄부력총각, 사또, 도둑, 서른 냥, 돈전대, 노인, 말 한 마디

5 원전 서지사항

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(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, 《백록어문》 제7집, 1990)

6 관련 자료